

월요광장

광주·전남 신문산업의 발전 방향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

한국언론재단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구당 신문 정기구독률은 2003년 52.9%에서 2012년 24.7%로, 열독률은 82.1%에서 40.9%로 줄었다. 전국의 지역 일간신문 매출액도 2003년 2430억 원에서 2012년 2220억 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GDP가 767조 원에서 1272조 원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산업으로서의 신문의 위기는 심각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문의 위기는 분명히 공동체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다. 그것은 문명공동체에서 신문이 담당해 온 순기능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뉴스와 정보의 생산 없이 유통만을 담당하는 포털 뉴스나 인터넷 언론에 전통적인 신문이 수행한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법조칼럼



강성두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

변호사라는 직업이 일과 후의 시간조차 맘대로 보낼 수 없는 것이라 정해진 일자와 시간에 방송을 하는 일일드라마나 주간드라마를 제대로 본지가 꽤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기계 덕택에 프로그램 한 편 혹은 그 일부를 보지 못하여 하더라도 다음날이면 다운로드를 하여 볼 수 있게 되어 간혹 흥미를 끄는 드라마가 있으면 관심 있게 시청하기도 합니다. 드라마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신변잡기, 남녀 간의 사랑, 음모 등이 적당히 섞여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라 입무에 무가워진 머리를 식히는 것에는 적격입니다. 최근에 종영된 ‘개과천선’이라는 드라

개과천선

마는 주인공의 직업이 변호사이고, 연기를 하였던 배우들을 평소에도 좋아했던 지라 처음부터 작심하고 시청을 하였습니 다. 이 드라마의 간단한 줄거리는 대형로펌에서 절نا가던 (그리고 참으로 냉혹한) 변호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후 기억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의 기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던 중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서 어렵고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았던 법정드라마에 비하여 리얼리티도 상당히 높아 보는 동안 나름 흥미를 갖고 집중을 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소개하는 칼럼이 아니니 각설하고, 이 드라마에서는 실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을 모티브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지는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는지라. 첫 번째, 기억상실전의 주인공처럼 능력이 있지만 철저히 있는 자의 편에 서있는 변호사만,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는 하나 능력이 없는 변호사 중 의뢰인들은 누구를 원할까? 두 번째, 단순한 선악구도에서 악한 자

를 변호하는 변호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평소에도 실력 없는 전문가의 위험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혹시 내가 그런 전문가가 아닐까하는 염려를 하는 편이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쉽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의뢰인은 자신의 변호사만은 능력이 있기를 원할 거라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일을 해주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존재하는 전제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 대답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과연 선과 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구분 지을 수 있을까하는 원론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선과 악의 개념에 절대라는 한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지 등의 의문은 제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질문을 단순히 만들어서, 살인 혹은 그에 준하는 범죄를 당한 피해자나 그 가족이 이런 일을 저지른 자를 변호하는 저에게 어떻게 그런 자를 변호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사람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에 의하여 판단해야하는 것이 재민이고 이러한 과정에는 당위나 도덕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을 찾는 어떠한 비난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죄를 범한 것이 맞으면서도 이를 부인하였던 태도는 나중에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물론 변호사는 사회의 지탄을 받는 피고인의 기준에 맞추어 변호하는 경우 변호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세간의 평,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 있는 가치의 기준에 맞추어 변호하는 것은 자신의 활동에 스스로 한계를 짓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세상의 구미에 맞추어 너무 편하고 쉬운 길을 가는 것은 아닌지, 의뢰인의 적법한 이익을 추구하고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하는 변호사의 존재가치를 망각하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하게 하는 지금입니다.

社說

재보선에 호남정치 이끌 인물 공천해야

호남 인물 가운데 잠룡(潛龍), 즉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은 사실상 없다. 야권에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문재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 여권에선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부성·정몽준 의원 등이 점쳐지고 있지만 호남에선 내세를 만한 인물을 찾기 어렵다. 또 정치권에서 향후 대권을 넘볼 수 있는 인사로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떠오르고 있으나 이 지역 출신으로 기대가 커져서 낙마해 기대를 할 수 없게 됐다. 김대중(DJ) 전 대통령 이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중량감 있는 호남 정치인은 없는 셈이다. 중진으로서 호남의 정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사들도 광주시장·전남도지사 선거에 쏠려 스스로 중량감을 낮추거나 안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은 물론

이도 새정치연합 당내에서조차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호남사람들과 정치권은 그동안 인물을 키우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자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광주·전남은 4개 선거구나 되는 만큼 1~2곳 정도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발탁하거나 참신한 정치 신인을 내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선 구태 정치인보다는 정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물이 우선되어야 한다. 신인 발탁의 경우 일부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권 과장은 ‘광주정신’과도 부합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호남 정치 복원은 이제 지역의 최대 과제가 되리라 본다. 새정치연합과 지역 정치권은 움츠러든 호남의 정치 현실을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현안 예산 확보 총력 기울여라

내년 광주·전남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의 1차 심의 마감에 10여일 앞두고 다가왔지만 핵심사업 국비 반영이 미진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속돼 온 국가예산의 ‘호남 홀대’ 악몽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가 정부에 제출한 2015년 국고사업 141건 3조2617억 원 가운데 현재 반영된 예산은 100건 2조7700억 원이다. 41개 사업 5000여억 원이 빠진 것이다. 표정사국이 대세를 이루는 상황에서 문제는 주력사업 대부분의 예산 반영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광주시가 건의한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을 위한 산단 설계비 등 632억 원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안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미래성장 동력 차원에서 해당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인데 반해 기재부의 인식은 이에 미

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지역불균형은 더 심해질 것이 뻔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마저도 묵살될 처지다. 광주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0억 원은 물론 광주 R&D특구 연결도로 개설 설계비 60억 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 역시 총 499건 8조2492억 원 가운데 반영된 사업이 341건 4조7269억 원으로, 반영률 57.3%에 그쳤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200억 원), 여수 화태~백야 간 연도교 건설(100억 원), 진도 군내~서방 간 도로개설공사(100억 원) 등은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다고 한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강조한다면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과 새로 선출된 시·도지사도 기재부를 설득하는 등 기재부 예산안에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을 총력할 것이다.

無等鼓

모 지상파 방송국의 역사드라마 ‘정도전’이 5회를 끝으로 29일 막을 내렸다. 정도전을 시청하기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은 약속을 잡지않는 직장인이 많았을 정도로 공전의 히트를 쳤다. 퓨전사극이 대세를 이루는 상황에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정통사극의 인기는 기대 밖이었다. 인기비결에는 극본을 쓴 정현민이라는 작가의 이력이 한 몫을 했다. 그는 고교를 졸업한 후 노동현장에서 땀을 흘렸고 10년의 국회 의원 보좌관 생활을 거쳐 늦깎이로 작가가 됐다. 5명의 국회 의원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쌓은 경험이 정도전을 생생한 정치드라마로 만들었다. 정도전이 주인공이지만 이인임과 주 역을 맡은 정현민은 온몸으로 느끼면서 깊은 감동을 얻어가는 명소로 육성시켜야 한다. 남부내륙도시 광주의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고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광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해외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유무형의 문화관광 실행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용이 시급하다. 이제 머지않아 아시아문화전당이 문을 열면 광주의 문화적 기반과 역량이 현저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외관광객 유치는 개별국가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엄청난 성장잠재력을 가진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현실성 있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세’라는 말은 알피지만 가슴에 새길 수 밖에 없는 지적이었다. 정 작가의 기발한 설정은 이성계 앞에서 정도전과 정몽주가 사(使)와 충(忠)이란 글자를 쓰는 대목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고려말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가 자신의 향후 행보를 물은데 대한 답이었다. 둘다 백성의 입(口)이 민심이라면서 정도전은 사람(人)을 더해 역성혁명으로 역사(史)를 만들 것을 총망랐고 정몽주는 중심(1)을 잘잡고 마음(心)을 다스려 고려에 충성(忠)할 것으로 요구했다. 막역지우인 삼봉(정도전)과 포은(정몽주)이 결국 다른 길을 갈 것이라는 암시로 이만한 설정이 어디있겠는가. 정도전을 보면서 2003년에 방영된 ‘다모’가 떠올랐다. 조선시대 여객자를 다룬 사극으로 14부작이었는데 ‘다모왕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두 작품 모두 인기가 있다해서 방영 횟수를 늘리지 않았다. ‘to the basic’. 기본에 충실하는 것의 중요성을 끊임어보게 하는 드라마였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정현민의 정도전

기 고

정율성 마케팅과 중국관광객 유치



김형주 광주김치박물관 학예사

정율성은 근대시기 예방광주가 낳은 국제적인 예술인으로 청년기를 중국대륙에서 활동하면서 인민해방군가, 초록빛조국, 연안송 등을 지어 중국 최고의 인민음악가의 반열에 오른 자랑스러운 인물이다. 뛰어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세기 동안 이념의 족쇄에 묶여 있다가 전향한 예술인에 대한 해금이 이루어지면서 그의 작품을 직접 접하면서 연구하고 공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광주시에서는 선생을 추모하고 선양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

인 것이 2005년 창설된 정율성국제음악제이다. 매년 음악제를 실시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측 인사들이 서로 오가며 다양한 교류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은 천혜의 자연풍광과 우수한 문화유산 자원을 소유하고 있지만, 미흡한 교통연계망과 호텔·면세점 등의 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하여 대량의 중국관광객 유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관광객이 1067만 명에 중국인 입국자수도 400만 명을 돌파했는데, 그 가운데 광주를 찾은 외국인인 약 2%수준인 20만 명 남짓이었고 중국인은 4만여 명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중국관광객의 효율적인 유인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13억 중국인의 마음속에 영서 원히 살아 숨 쉬는 정율성 선생의 음악혼을 일깨우는 문화마케팅을 활발히 전개 할 필요성이 절실해진다. 우선, 정율성 생가를 복원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까지 광주에서는 선생의 생가 위치를 놓고 동구 불로동과 남구 양림동 간에 작은 논쟁이 있어왔는데, 시군의 경계를 달리하는 곳이라면 몰라도 같은 권역 내에서의 논란은 대응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넉넉한 부지를 확보하고 치밀한 고증과정을 거쳐 방문객의 깊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도록 복원한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중국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별다른 기념물도 없이 ‘정율성 생가터’라는 덩그러니 놓인 표지석 보다는, 근사한 외관을 가진 옛집을 되살려 놓음으로써 그들의 관심과 이목을 사로잡아야 한다. 다음으로 선생의 주요 작품을 연주하며 동시에 그의 생애를 뮤지컬 또는 연극으로 보여주는 대규모 공연시설인 ‘정율성 기념음악당’ 건립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독립적인 공연장이 바람직하겠지만, 어려울 경우에는 복원된 생가 인근의 학교 안에 다목적 체육관을 겸한 공연

장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선생의 일대기를 웅장한 서사극으로 구성하고 극의 중간중간에 대표곡을 삽입하여 연주함으로써, 그들이 존경하는 대한민국 광주출신 음악가의 심오한 예술정신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깊은 감동을 얻어가는 명소로 육성시켜야 한다. 남부내륙도시 광주의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고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광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해외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유무형의 문화관광 실행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용이 시급하다. 이제 머지않아 아시아문화전당이 문을 열면 광주의 문화적 기반과 역량이 현저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외관광객 유치는 개별국가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엄청난 성장잠재력을 가진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현실성 있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2차 대형사고 원인, 도로위 시시비비 그만!

국도부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1차 사고에 이은 2차 사고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 치사율도 무려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실제 지난 3년간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141명에 치사율이 무려 61.3%로 일반교통사고(9.7%)의 6배를

넘는다는 통계다. 우선 사고 발생시 최대한 빨리 차량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뒤따르는 차가 설령 급정거에 성공했다고 해도 그 뒤에 따라온 차들이 두 번째 차량을 추돌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므로 신속하게 현장을 빠져 나와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불행중 다행으로 내담부터 한국도로공사와 손보업계는 협력체제를 구축, 고속도로내 발생한 1차 사고차량에 대한 신속한 견인서비스를 통해 2차 사고의 위험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일별 국도보다 고속도로 사고가 몇 배나 더 위험한 이유는 뒤따르던 차나, 사고를 수습하는 사람이 당하는 그 다음 사고 즉 ‘2

차 사고’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지하는 사실이다. 보통 사고 때는 운전자가 탑승객 모두 차 안에 있기 때문에 차가 방패역할을 해주지만, 차 밖으로 나오면 그런 방패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2차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경우는 이젠 없어야 한다. ▲김도연·영암군 영암읍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 |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32 | 경 영 시 원 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
| 편 집 부 2200-649 | 문화생활부 2200-661 | < F A X 222-8005 > | < F A X 222-0195 > |
| 정 치 부 2200-642 | 여론대체부 2200-696 | < F A X 227-9500 > | < F A X 227-9500 > |
| (대표 FAX 222-4918) | 체 육 부 2200-697 | 디 자 인 실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1 |
| 사 회 부 2200-663 | 사 진 부 2200-693 | 프 로젝트 팀 2200-555 | < F A X 02-773-9335 > |
| (대표 FAX 222-4267) | 조 사 부 2200-571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